

## 제5회 디지털 신기술 세미나 개최

‘클라우드 기술동향과 디지털전환 사례’를 주제로 8월 24일(목) 산기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넥스트 클라우드 전망, 넥스트 컴퓨팅은?(디지털엑스원 정우진 대표), ▲클라우드 성숙도에 따른 DT 전략 및 초거대 AI 모델 적용 사례(베스핀글로벌 김규형 상무), ▲스마트 클라우드 전환 전략(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은주 단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참여 기업들은 클라우드 적용사례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 넥스트 클라우드 전망, 넥스트 컴퓨팅은?

#### 발표 : 디지털엑스원 정우진 대표

엣지 컴퓨팅과 디지털 트윈 및 XR을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결합한 ‘Spatial Computing’이 B2B 영역에서 급부상하고 있으며, 생성AI와 양자컴퓨팅도 클라우드와 연계되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DX3.0 시대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초점이 비용절감보다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에 맞춰지고 있으며, 플랫폼과 솔루션을 활용한 비즈니스 문제 및 사회 현안 해결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기업들이 아키텍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Cloud native, Platform native, Data native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 클라우드 성숙도에 따른 DT 전략 및

#### 초거대 AI모델 적용 사례

#### 발표 : 베스핀글로벌 김규형 상무

베스핀글로벌은 클라우드 MSP로서 클라우드 도입, 운영 및 최적화 전반에 대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이유는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제고하고 IT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며, 클라우드 성숙도에 따라 ‘Cloud transformation (phase 1)’ ‘FinOps (phase 2)’, ‘Security & Automation (phase 3)’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생성 AI를 활용한 챗봇 구축 사례와 HelpNow 플랫폼을 활용한 클라우드 구축 사례를 소개하였다.

### ■ 스마트 클라우드 전환 전략

#### 발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은주 단장

2000년대의 ‘클라우드’는 주로 클라우드 컴퓨팅 (IaaS)을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2010년대에는 IaaS/PaaS/SaaS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Everything as a Service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는 서비스를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제공하는 아키텍처를 뜻하며, MSA를 통해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 및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든 영역에 MSA를 반드시 적용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도메인에 따라 Monolithic, SOA, MSA, Serverless 등 다양한 아키텍처 선택지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